

# The Logic Basic

## 3주차

1. 개요
2. 요약

### The Logic

-> 3주차에서는 개요와 요약하는 방법을 실었습니다. 개요는 글의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에 완결성을 갖춘 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글을 쓰기 전에 개요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1장 개요에서는 3단계를 거쳐 개요를 짜는 법을 소개하고 학생들이 그에 따라 개요를 짜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장 요약에서는 제시문을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요약하는 방법을 실었습니다. 대부분 학교의 1번 논술문제가 제시문을 요약하라는 것임을 상기해볼 때 이 장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요약에서 흔히 하는 실수가 바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문장을 쓰는 것인데, 이러한 잘못된 습관이 들지 않도록 고민하였습니다. ~것이다. ~하고 있다. ~라고 말한다 등의 중립적 표현을 쓰는 방법을 숙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약을 할 때에는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 제시문을 자신만의 언어로 새롭게 창조하여 표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선택과 삭제, 그리고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 3주차

### 1. 개요

#### The Logic

제한된 시간 안에 완결성 있는 글을 완성하는 것은 꽤나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답안지에 글을 쓰기 전에 개요를 작성하여 순서대로 써내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개요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세 단계를 소개합니다. ① 논제와 단락을 고려한 개요 ② 분량을 고려한 개요 ③ 핵심어를 활용한 개요가 바로 그것들입니다. 아래의 문제를 풀면서 위 세 단계로 개요를 작성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참고 - Q&A로 풀어본 개요에 관한 궁금증

1. 개요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예,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논술은 제한된 시간에 서론, 본론, 결론의 완결성 있는 글을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요를 작성하여 글의 뼈대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요를 작성하지 않으면 중간 중간에 수정을 하게 되고, 수정을 하다보면 시간에 맞춰 글을 작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 이 책에 나온 방법만을 사용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 책에 나온 방법은 어디까지나 예시일 뿐입니다. 문제를 계속 풀어나가다가 자신에게 맞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계속 연습하여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개요 짜는 시간은 얼마나 잡아야 하나요?

주어진 시간마다 다르겠지만 경험상 전체 개요를 짜는데 30분이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쓰는 속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너무 긴 시간을 사용하다 보면 실수가 계속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의 두 입장을 [가]와 [나]의 관점에서 대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라]의 쟁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 (서강대 2015 모의 인문)

[가]

모든 종의 경우 필시 수많은 저해 요인이 작용하여 그 종의 평균 개체 수, 심지어는 생존 자체 까지도 결정한다. 어지럽게 자라나는 수풀을 보고 있노라면, 그 식물들의 상대적인 수와 종류가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든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 미국에서 어떤 지역의 숲을 벌채하고 나니 그 자리에 전혀 다른 식물들이 돌아났다는 이야기를 누구나 들어 봤을 것이다. 반면 과거 미국 남부에 있는 고대 인디언 지역의 나무를 모두 베어버렸는데, 이후 같은 자리에 같은 나무가 자라나 해당 지역의 수림은 그 주위의 처녀림과 똑같은 종이 자라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해마다 수천 개의 씨앗을 뿌리는 온갖 종류의 수목들 사이에 얼마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생존 경쟁은 같은 종의 개체들 사이에서 가장 심할 것이다. 그들은 같은 먹이를 필요로 하며 똑같은 위협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같은 종의 변종도 경쟁은 똑같이 심할 것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같은 속(屬)의 종들은 보통 습성과 체질, 구조 모두 거의 비슷한 까닭에, 그들끼리 서로 경쟁이 붙게 될 때에는 항상 다른 속(屬)의 종과 벌이는 경쟁보다 일반적으로 더 심각하다.

- 찰스 다윈, 『종의 기원』

[나]

동물 세계나 인간 사회에서 협동이 무척 자주 일어난다는 것을 종종 관찰할 수 있다. 이 기적 개체들이 서로 협동을 하는 것은 호혜성 때문이다. 동물이 호의를 베풀면 그 호의를 입은 상대는 나중에 그에게 보답함으로써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두 개체 간에 상호 작용하는 횟수가 누적 될수록 협동의 확률은 더욱 높아진다.

코스타리카 흡혈박쥐는 낮에 고목에 매달려 있다가 밤이 되면 짐승을 찾아가 몰래 살갗에 작은 상처를 내고 조용히 피를 빨아먹는다. 그러나 마땅한 대상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자주 배를 굶곤 한다. 박쥐는 60시간 동안 피를 먹지 못하면 아사 위기에 처하는데, 다행히 그들은 하루 필요량 이상의 피를 빨아두었다가 잉여분은 다시 토해내서 다른 박쥐에게 줄 수가 있다. 이들 박쥐는 같은 장소에 여러 마리가 함께 서식하여 주고받음을 반복한다. 과거에 피를 제공한 박쥐는 그 상대로부터 피를 보답 받는다. 남은 피를 주지 않은 박쥐는 다음에 피를 얻지 못한다. 박쥐들은 이 규칙을 성실 하게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매트 리들리, 『이타적 유전자』

[다]

기업 활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윤 극대화이다. 우선, 개개인이 사회 이익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추구할 때 공공의 편익이나 사회적 부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견해가 있다. 이윤 극대화 추구를 기업의 주된 목적으로 볼 경우, 합법적인 기업의 이윤 추구 활동 자체가 개인의 삶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 그리고 일자리를 제공하며,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부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간과하고 이윤 극대화만 추구할 경우 장기적으로 보면 비효율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때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기업의 장기적 이익과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

[라]

사용자 2: “임금은 지난 2월에 이미 인상 조정이 되었고, 그 조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어요. 상여금도 작년 연말에 지급했어요.”

근로자 1: “일방적인 인상이었습니다. 지급된 상여금도 상여금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을 정도였어요. 한 달 잔업 수당 정도였습니다.”

사용자 2: “여러분은 연장 근로 수당을 다 받죠? 본사 사람들을 가 봐요. 밤 아홉 시, 열 시까지 연장 근무를 하면서도 말 한 마디 안 해요.”

근로자 1: “그들은 배운 사람들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배운 사람들에게 아무 기대도 걸지 않아요. 그들은 또 연 육백 퍼센트의 상여금을 받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연장 근로 수당을 못 받는 것도 그들이 잘못하는 일예요. 그들이 잘못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자 5: “안 되겠군.”

사용자 1: “지부장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아주 상반되는 거로 믿고 있죠”

근로자 1: “지금, 은강에선 그래요.”

사용자 1: “잘못 알고 있어요. 사업이 잘 되면 이익을 보는 것은 여러 근로자들야요.”

근로자 1: “근로자들만의 이익이어서는 안 됩니다. 노사 간의 이익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이상예요. 지금은 너무 불공평합니다. 공평해야 산업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

사용자 5: “왜 재로 하여금 산업 평화 운운하게 놔둬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용자 3: “앉으세요.”

사용자 1: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어요. 회사가 이익을 올리면 그 이익 전체를 몇 사람이 나누어 갖는 줄 아는데 아주 위험한 생각야요. 기업 이윤은 사회로 환원되고, 종업원 봉급으로 지급되고, 주주 배당금으로 나가고, 기업 자체 축적금으로 공정하게 배분되는 겁니다.”

근로자 1: “그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사용자 1: “준비한 말이 있으면 해 봐요.”

근로자 1: “종업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올린 수치스러운 이윤을 어느 사회에 어떻게 환원합니까? 그 이윤을 또 어떤 주주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끔찍한 이윤을 축적해 또 뭘 하려 는 거죠? 그런 기업은 더 이상 자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근로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는 임금을 지급하고 기계를 돌린 이상 그것은 이윤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불려져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 회장님께서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 해마다 이십억 원 을 내놓으시겠다고 하신 기사를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신문 기자들 앞에서 웃고 계신 회장님 사진 도 보았습니다. 부공장장님 말씀대로 공정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 공장의 근로자들에 게 먹고, 자고, 일만 하다 해고 통지를 받으면 나가라고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한 기업이 새삼스럽게 사회에 뭘 내놓겠다는 것은 기만입니다. 국민의 지탄을 피하려는 속임수에 불과해요. 저희들은 회장님이 설립하신 사회 복지 재단의 이사 명단도 구해 보았습니다. 그분들에게 기대를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그 기대도 깨져 버렸습니다.”

-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 논술의 완성도는 개요에서 만들어진다.

(서강대 2015 모의논술 가이드북 中)

### 1. 논제와 단락을 고려한 개요

논술의 개요는 논제 해석으로부터 나옵니다. [문제1]을 다시 보면서 이 말의 의미를 구체화해 봅시다. 어떤 글에서든 개요 작성의 시작은 전체 글을 분할하는 것입니다. [문제1]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어느 것을 먼저 쓰든 간에 논술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야 합니다. 그러니 개요는 일단 크게 ①, ②로 나뉘집니다. 그런데 이를 좀 더 세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글이든 중요 한 부분은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 이 글의 두 부분 중에 더 중요한 부분인 뒷부분이 더 세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래서 논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 것이 아래와 같습니다.

① [다]의 두 입장을 [가]와 [나]의 관점에서 대비하고, ② 이를 바탕으로 [라]의 쟁점에 대한 ③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 (800~900자)

여기서 ②와 ③을 어떤 방식으로 글에 나타낼 것인지는 다양한 전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을 세우는 단계가 개요 작성입니다. 중요한 점은 논제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세 부분이라는 말은 중요합니다. 이 글이 세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논술을 채점해 보면 단락을 나누지 않고 전체 글을 하나의 통글로 만들어 제출하는 답안이 발견됩니다. 통글로 제출된 답안이 모두 잘못 쓴 글은 아니지만 대체로 낮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왜 그러할까요? 단락이란 일단 독자를 고려한 단위입니다. 글을 이루고 있는 내용은 몇 개의 작은 단위로 쪼개지기 마련입니다. 이 구분을 무시하고 통글을 쓰면 독자는 각각의 단위를 나누는 데 혼선을 빚습니다. 그래서 단락을 통해 전체 내용을 분할하여 보이면서 독자를 전체 글의 주제로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락을 독자의 호흡을 고려하여 나눈 단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단락은 하나의 중심생각(소주제문)으로 모인 문장들의 집합입니다. 논제를 구성하는 중심생각이 세 가지로 나뉜다면 이 각각의 중심생각들을 구분해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활용되는 것이 단락입니다. 단락은 글쓴이의 입장에서 자신의 중심생각을 구분하고 그 중심생각을 중심으로 문장들을 모아낸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단위가 됩니다. 논제 해석 단계에서 생각을 분할하고 이를 고려하여 단락을 구성하는 방식을 개요에 반영하는 과정은 효과적인 논술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위의 ①, ②, ③을 순서대로 제시한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은 설계가 가능합니다.

1단락: [다]의 입장을 [가], [나]의 관점에서 대비

2단락: [라]의 쟁점 기술

3단락: 자신의 견해 논술

## 2. 분량을 고려한 개요

학생들은 논술을 긴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량을 다 채우지 못할 것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논술은 생각보다 짧은 글입니다. 왜 그러할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논술의 분량이 의미하는 바를 실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논제1]에서 보였던 800자에서 900자라는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보면서 이 실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봅시다. 논술의 분량이 띄어쓰기를 포함한 분량이라는 점에 유의합시다. 이 분량을 A4 용지로 환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컴퓨터의 A4 기본 편집 형식에 글을 넣으면 2,000자가 조금 넘는 분량이 나옵니다. 단락이 있는 글의 경우에는 대략 1,800자 정도의 분량입니다. 그러면 800~900자라는 분량은 A4 반장이 안 되는 짧은 분량입니다. 아직 짧은 분량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면 이를 문장으로 환산해 봅시다. 한 문장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몇 자나 될까요? 논술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자신의 논술에 나타나는 문장이 평균적으로 몇 글자인지를 가늠해 둘 필요도 있습니다. 글의 장르가 달라지면 문장 길이도 달라지기 때문에 논술문의 평균 글자 수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논술은 읽기에 기반을 둔 글이기 때문에 다른 글보

다 문장 길이가 길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험생들의 문장은 대략 65~70자 정도의 문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렇다면 800~900자의 글은 많아야 14문장으로 구성된 글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앞서 [문제1]을 세 개의 단락으로 구성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각각 단락은 4~5문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개요는 어떻게 구성될까요? 단락을 고려한 설계에 분량을 고려한 설계를 반영하면 아래와 같이 개선된 설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1단락: [다]의 입장을 [가], [나]의 관점에서 대비\_ 4~5문장

2단락: 관점 대비를 바탕으로 [라]의 쟁점 기술\_ 4~5문장

3단락: 자신의 견해를 논술\_ 4~5문장

### 3. 핵심어를 활용한 개요

수험장에서 앞서 논의된 단락과 분량을 고려한 개요 단계는 논제를 직접 분할하고 분량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글을 어떤 방식으로 전개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핵심어를 활용하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 핵심어 활용 단계의 개요를 작성하는 단계는 제시문을 읽는 활동도 함께 수행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그림3]

[그림3]은 앞서 본 것을 개요 단위로 변환한 것입니다. 개요는 자신의 글의 질서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글의 주제를 중심으로 핵심어들의 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핵심어 중심의 개요를 작성할 때는 나머지 2단락과 3단락과의 관계를 살피면서 핵심어를 배치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림3]의 단락 3입니다. 자신의 입장을 수립하고 견해를 전개하기 위해 어떤 근거를 어떤 방식으로 나타낼 것인가를 구상하는 단계이니

다. 여기에 알맞은 핵심어를 빈칸에 배치하는 것으로 논술을 위한 개요는 완성됩니다. 이를 서술형으로 배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단락: 기업 활동의 목적에 대한 두 관점 4~5문장

이윤의 극대화 중시(경쟁) ↔ 사회적 책임 중시(협력)

2단락: 관점 대비를 바탕으로 [라]의 쟁점 기술 4~5문장

3단락: 기업 활동에서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효율적임 4~5문장

(기업 활동에서 이윤의 극대화 > 사회적 전체적으로 긍정적임)

근거 1.

근거 2.

**그렇다면 모든 과정이 끝났습니다. 위 개요에 따라 답안을 완성해봅시다.**

※ 예시 답안

<p><b>1단락</b> 기업 활동의 목적에 대한 두 관점 4~5문장 이윤의 극대화 중시(경쟁) ↔ 사회적 책임 중시(협력)</p>
<p>제시문 (다)에는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기적으로 움직여야한다는 입장과 사회적 책임을 위해 공리적 관점에서 활동해야한다는 두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제시문 (가)는 개체들은 서로 경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으므로 한 개체가 이기적으로 활동하지 않는다면 도태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전자의 입장을 지지하는 견해이다. 이와 반대로 제시문 (나)는 호혜적 활동을 통해 각 개체가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음을 주장하며 협력을 강조하므로 후자의 입장을 지지하는 견해로 볼 수 있다.</p>
<p><b>2단락</b> 관점 대비를 바탕으로 [라]의 쟁점 기술 4~5문장</p>
<p>제시문 (라)에서는 사용자는 기업이 이익을 극대화해야 그것이 개인과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며 ‘낙수효과’를 강조하는 반면에 근로자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고 근로자와 상생하려할 때 장기적으로 더 이익이된다고 하며 서로 대립하고 있다. 사용자는 (다)의 전자 입장 및 (가)의 입장과 연결되어 경쟁을 통한 생존을 강조하는 입장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근로자는 (다)의 후자 입장 및 (나)의 입장과 연결되어 상생을 통한 협력을 강조하는 입장이라 볼 수 있다.</p>
<p><b>3단락</b> 기업 활동에서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효율적임 4~5문장 근거 1. 근거 2.</p>
<p>나는 제시문 (라)의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근로자와 상생할 수 있는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기업은 치안이 유지된 사회에서 도로·항만·항공·철도·전기·통신 등의 사회적 인프라를 통해 부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근로자는 피용자이지만 또한 고객이기 때문이다. 기업이 그들의 고혈을 짜내어 이익을 극대화한다 해도 그 잘못에 대한 화살은 결국 기업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p>

## 혼자서 해결하기

제시문 [가], [나], [다], [라]를 참조하여 [마]와 [바]의 시에 드러난 삶의 방식을 해석하라. [800자~1000자]

[가] 자율은 본능이나 욕망에 구속되지 않고 이성의 명령에 스스로 복종하는 것이다. 자율은 이성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지배할 때 가능하며 이성적 존재의 자기 지배라고 할 수 있다. 자율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성의 명령에 따르는 자율적 존재임을 자각해야 한다. 인간은 이성을 지닌 존엄한 존재로서 다른 동물과 구별된다. 우리는 이성의 명령에 따라 욕망을 스스로 지배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욕구만을 충족시키려 든다면 다른 사람의 욕망과 충돌하여 서로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우리는 이성적 존재로서 스스로 올바르게 판단하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어려서부터 줄에 묶여 자란 코끼리는 자율적으로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힘이 세져도 자신을 구속하는 줄을 끊지 못한다. 자율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행동할 뿐만 아니라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때 완성된다. 책임의 한계를 나와 이웃, 사회, 국가, 인류에까지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고등학교 도덕』 교과서

[나] 장(場)은 사회 공간이라는 대우주 속의 소우주를 의미하는데 소우주로서의 장이 위계적으로 조직되면서 사회 공간은 구조화된다. 이 과정에서 장은 고유한 내적 논리와 규범을 갖고 다른 장에 대해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는데 이를 통해 위치공간이 설정된다. [...] 투쟁공간으로서의 장을 이해할 때 중요한 요소는 투쟁의 방식이다. 투쟁은 자율성과 타율성의 논리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저널리즘의 경우 자율성은 사회 통합과 같은 뉴스로서의 본질적 가치를 강조하지만, 타율성은 판매부수와 같은 상업적 성공을 중요시한다. 생산자 논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제한생산의 장은 자율성이 높은 반면, 일반 공중을 시장으로 삼는 대량생산의 장은 타율적 원리로 작용한다. 또한 자율성은 보존 전략을, 타율성은 전복 전략을 택한다. 현상 유지의 자율성은 방어 전략에 초점을 두고 장의 폐쇄성을 강조하고, 현상 타파의 타율성은 공격 전략을 기반으로 장의 개방성을 추구한다. 그런데 자율성과 타율성은 상대적 개념이다. 하위 장은 독자적 규범을 통해 스스로 자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외부의 영향에서 비롯되는 타율성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려고 한다. 나의 자율성은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타율성이기도 한 것이다.

-김사승, 「프로-암 온라인 시티즌 저널리즘의 저널리즘적 의미에 관한 분석」

[다] 어떤 의미에서 인간은 삶의 본질과 자기 자신, 자신의 가능성과 목적을 그때마다 새롭게 인식한다. 그런 인식 과정에서 인간은 기존에 축적된 지식을 총체적으로 사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적, 도덕적 자기 인식이라는 것은 매번 새롭게 겪어야만 하는 그때그때의 경험에 의해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다. 인간은 항상 이 세계와 관계를 맺으며 이 세계를 획득하려는 고통스런 요구에 내몰린 채, 자신이 직관적으로 감지

한 이상과 이 세계를 조화시키고자 애쓴다. 이 채워질 수 없는 요구야말로 인간적 불만과 자기 자신의 부족함이라는 고통의 영원한 원천이다.

-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봉인된 시간: 영화 예술의 미학과 시학』

[라] 오로지 나 혼자만이 모든 행동에 책임이 있다. 이것이야말로 나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표식이다. 우리는 스스로 입법하는 자이며 우리 자신이 세운 법률에 따라서만 행동하는 '자율적' 주체이다. 신 및 기타의 힘, 충동, 권위 있는 문헌, 부모의 요구, 사회 관습, 국가의 법률 등 우리 바깥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 행위의 기초가 될 수 없다. 모든 외적 힘들은 '의지의 타율적 규정들'에 불과하며 타자가 부여한 우리 행동의 원인들이다. 이런 외적 힘들이 우리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는 자유롭고 자족적인 존재로서 살지 못할 것이다.

- 휴버트 드레이퍼스 · 손 켈리, 『모든 것은 빛난다』

[마]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자기 온몸으로 헐벗고 영하 13도

영하 20도 지상에

온몸을 뿌리박고 대가리 쳐들고

무방비의 나목(裸木)으로 서서

두 손 올리고 벌받는 자세로 서서

아 벌받는 몸으로, 벌받는 목숨으로 기립하여, 그러나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온 혼(魂)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속으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하에서

영상으로 영상 5도 영상 13도 지상으로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으스러지도록 부르터지면서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고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고

푸르른 사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아아, 마침내, 끝끝내

꽃 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꽃 피는 나무이다

- 황지우,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어로」

[바] 잡풀은 잡풀끼리 어울려 산다  
갖가지 모양새, 수수한 차림새  
오가는 길손이야 보든 말든  
바람 부는 대로 하느작이는 몸짓

가느다란 잎들이 어깨를 비빈다  
이름 없는 꽃들이 미소를 짓는다  
머리를 맞대고 소곤거리는  
잡풀 이야기 하냥 즐겁다

거목은 아니어도 거목의 꿈  
생명의 빛을 세상에 펼친다  
푸르게 그러나 조용히 설레면서  
잡풀은 잡풀끼리 어울려 산다.

- 리상각, 「잡풀」

<답안을 작성하시오>

1. 논제와 단락을 고려한 개요

2. 분량을 고려한 개요

**3. 핵심어를 활용한 개요**



**4. 답안 작성하기**



## 혼자서 해결하기 - 예시 답안

### 1. 논제와 단락을 고려한 개요

- ① 제시문 [마]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에 관해 서술하시오.
- ② 제시문 [바]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에 관해 서술하시오.
- ③ 제시문 [가], [나], [다], [라]의 주제를 요약하되 '삶의 방식'과 관련하여 서술하라.
- ④ 위의 논의를 토대로 [마]의 삶의 방식을 해석하라.
- ⑤ 위의 논의를 토대로 [바]의 삶의 방식을 해석하라.

### 2. 분량을 고려한 개요

(800~1000자 - 12~15문장 ,수험생들의 평균적 문장길이 - 65~70자)

- 총 14문장
- ① 서론  
(1문단, 총 1문장)
  - ② 제시문 [마]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에 관해 서술하시오.  
(1문단, 총 2문장)
  - ③ 제시문 [바]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에 관해 서술하시오.  
(1문단, 총 2문장)
  - ④ 제시문 [가], [나], [다], [라]의 주제를 요약하되 '삶의 방식'과 관련하여 서술하라.  
(2문단, [가], [나], [다], [라] 각 1문장 총 4문장 )
  - ⑤ 위의 논의를 토대로 [마]의 삶의 방식을 해석하라.  
(3문단, 총 2문장)
  - ⑥ 위의 논의를 토대로 [바]의 삶의 방식을 해석하라.  
(3문단, 총 2문장)
  - ⑦ 결론  
(3문단, 총 1문장)

### 3. 핵심어를 활용한 개요

- ① 서론
- ②, ③ [마] - '나무' -> '투쟁하는 인간'
- ④, ⑤ [바] - '잡풀' -> '조화를 지향하는 서로 의지하는 보통 사람들'
- ⑥ [가] - 이성을 통한 자율의 통제와 그 외연의 확장
- ⑦ [나] - 자율성과 타율성의 상대성, 자율성과 타율성의 공존
- ⑧ [다] - 세계와의 조화로운 공존과 윤리적 자율성의 추구
- ⑨ [라] - 타율적 규정보다는 자신의 입법과 책임을 중시하는 자율적 주체성을 찾을 것
- ⑩, ⑪ [마] -> 타율적 개입에 맞선 자율적 의지와 투쟁적 노력
- ⑫, ⑬ [바] -> 타율적 영향에 흔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신들의 삶을 지켜감
- ⑭ 결론

#### 4. 답안 작성하기

세상은 한 인간에게는 [가]처럼 이성에 기반을 둔 자율성을 실현하는 공간이지만 그 자율성은 [다]에서 볼 수 있듯 타율성과 공존한다. 어떤 한 존재를 기준으로 본다면 자율성과 타율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의 ‘나무’는 냉혹한 현실에서 고통 받는 고독한 인간이다. 나무는 영하로 내려가는 극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투쟁한다. [바]의 ‘잡풀’은 서로 의지하는 소박한 보통 사람들인데, 그들은 서로 의지하며 자신들의 규범을 지키며 살아간다.

[가]는 자율성을 이성을 통해 제어하며 그 외연을 확장하여 개인뿐만 아니라 인류에까지 적용시키려 한다. [나]는 자율성과 타율성이 상대적 개념임을 지적하며, 세상이 자율성과 타율성으로 이루어져있음을 지적한다. [다]는 세계와의 조화로운 공존과 윤리적 자율성의 추구를 강조한다. [라]는 타율성의 개입에 맞서 자신의 주체성을 발휘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바탕으로 [마]의 삶의 방식을 해석하자면 ‘추위와 별’은 타율적 개입이라고 볼 수 있고, 그에 굴하지 않고 결국 꽃을 피워낸 ‘나무’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고 목적을 달성하는 자율적 주체를 뜻하므로 [마]의 삶의 방식은 [라]와 가장 비슷하다.

그리고 또, [바]의 삶의 방식을 해석하자면 우선 ‘잡풀은 잡풀끼리’에서 알 수 있듯 이들은 스스로 선택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오가는 길손이야 보든 말든’에서 알 수 있듯 이들은 외부의 세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 규범으로 자신들의 세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는 [다]의 논지와 닮아있다. 결론적으로 [마]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주체성의 발휘, [바]는 세계와의 공존을 통한 독자적 자율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 2. 요약

### The Logic

대부분의 학교의 채점 기준표에서는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는 것'을 감점요인으로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약을 할 때에는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 제시문을 자신만의 언어로 새롭게 창조하여 표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선택과 삭제, 그리고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요약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듯한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하고 있다, ~것이다, ~의미이다, ~ 때문이다, ~수 있다, ~셈이다 등의 표현을 적절히 잘 사용하여야 합니다.

세 가지 원리 - 1. 선택과 삭제, 2. 재구성, 3. 중립적 표현

#### 1. 선택과 삭제

-> 제시문의 주제가 드러난 내용 혹은 주제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는 내용을 선택하고, 중요도가 크지 않은 단어 및 문장을 삭제, 불필요하게 제시문의 사례를 나열하지 말 것.

① 다음의 문장에서 주요 키워드를 선택하고 주변 키워드는 삭제하십시오.

비록 대지와 모든 열등한 피조물은 만인의 공유물이지만,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는 자신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 신체와 관련해서는 자기 자신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다.

<답안>

선택 : 공유물, 자신의 신체에 대한 소유권

삭제 : 비록 대지와 모든 열등한 피조물은 만인의 공유물이지만,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는 자신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 ~~신체와 관련해서는 자기 자신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다.~~

② 다음의 문장에서 주요 키워드를 선택하고 주변 키워드는 삭제하십시오.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다른 사람이 겉으로 드러내는 행동을 흉내 내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그러면서 상대방의 감정도 그대로 받아들인다. 만약 친구가 즐거워하며 미소를 지으면 여러분도 미소를 지으며 즐거움을 느낀다.

<답안>

선택 : 생물학, 설계, 흉내

삭제 :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다른 사람이 겉으로 드러내는 행동을 흉내 내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상대방의 감정도 그대로 받아들인다. ~~만약 친구가 즐거워하며 미소를 지으면 여러분도 미소를 지으며 즐거움을 느낀다.~~

## 실전연습 2-1

다음의 문장에서 주요 키워드를 선택하고 주변 키워드는 삭제하십시오.

정보 사회의 진전에 따라 고도의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복지 사회가 실현될 것이고, 경직된 이데올로기와 서구 중심적인 세계관을 뛰어넘어 다양한 인류 문화가 공조하게 될 것이다. 정보 사회가 누구에게나 가능성이 열려 있고, 선택의 기회가 넓어 인간의 가치와 만족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 권위주의가 동반자적인 수평적 관계로 바뀔 것이라는 점에서도 고무적이고 많은 기대를 갖게 한다. 한마디로 정보 사회는 산업 사회의 여러 가지 그늘과 모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택 및 삭제>

<예시 답안>

선택 : 정보사회, 다양한 인류 문화, 가능성, 기회, 탈권위주의, 수평적

삭제 : 정보 사회의 진전에 따라 고도의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복지 사회가 실현될 것이고, ~~경직된 이데올로기와 서구 중심적인 세계관을 뛰어넘어~~ 다양한 인류 문화가 공조하게 될 것이다. 정보 사회가 누구에게나 가능성이 열려 있고, ~~선택의 기회가 넓어 인간의 가치와 만족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 권위주의가 동반자적인 수평적 관계로 바뀔 것이라는 점에서도 고무적이고 많은 기대를 갖게 한다. ~~한마디로 정보 사회는 산업 사회의 여러 가지 그늘과 모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실전연습 2-2

다음의 문장에서 주요 키워드를 선택하고 주변 키워드는 삭제하십시오.

‘현실주의적 낙관성’은 현실에서 동떨어지지 않은 낙관적 사유성향이다. 현실주의적 낙관성은 자신에 대한 규칙적 점검, 잠재적 기회와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재평가와 연관된다. 현실주의적 낙관성은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긍정적 성장 또는 배움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일어나는 일들의 의미에 대해서 사람들이 내리는 평가와 해석은 사실과 확실성에만 근거할 수는 없다.

<선택 및 삭제>

<예시 답안>

선택: 현실주의, 낙관성, 점검, 재평가, 현실인식

삭제: ~~‘현실주의적 낙관성’은 현실에서 동떨어지지 않은 낙관적 사유성향이다. 현실주의적 낙관성은 자신에 대한 규칙적 점검, 잠재적 기회와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재평가와 연관된다. 현실주의적 낙관성은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긍정적 성장 또는 배움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일어나는 일들의 의미에 대해서 사람들이 내리는 평가와 해석은 사실과 확실성에만 근거할 수는 없다.~~

2. 재구성

->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말고 ‘핵심어’만 뽑아내어 자신만의 언어로 바꾸어 표현한다. 이 과정에서 일반화, 추상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 (고래, 원숭이, 사람 -> 포유류// 사과, 포도, 복숭아 -> 과일//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 고대 그리스 철학자)

① ‘핵심어’를 일반화, 추상화과정을 거쳐 자신만의 언어로 바꾸시오.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기술과 지식을 발전시키는 대신에,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기술의 진보를 계속 추진하거나 기술을 포기하고 거대한 자연의 질서에 자신을 내맡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의지를 부정하는 숙명론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자유의 존재이다. 만약 우리가 인간을 거대한 생명 질서의 한 부분으로 파악함으로써 기술 행위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인간에게 고유한 자유와 책임을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답안>

인간은 실존성을 바탕으로 운명을 개척해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적 질서에 순응하지 말고 물질적, 정신적 진보를 향해 나아가야한다.

② ‘핵심어’를 일반화, 추상화과정을 거쳐 자신만의 언어로 바꾸시오.

전통적인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느 한 제품군에서 잘 팔리는 상위 20%의 제품이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파레토 법칙”이 적용된다. 파레토 법칙에 의한 80:20의 집중현상을 나타내는 그래프에서는 상대적으로 발생확률 혹은 발생량이 적은 부분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한정된 공간과 자원을 가진 매장에서는 잘 팔리는 물건을 보다 집중하여 전시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베스트셀러 책을 잘 보이는 곳에 대량으로 쌓아놓고 판매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과 새로운 물류기술의 발달로 인해 그동안 무시되었던 부분도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게 되었다.

<답안>

이전에는 잘 팔리는 제품이 ‘파레토 법칙’에 의해 독점적 지위를 누렸다면 정보화와 유통 및 운송업의 발달로 소외받던 제품군도 새롭게 주목을 받게 되었다.

### 실전연습 2-3

‘핵심어’를 일반화, 추상화과정을 거쳐 자신만의 언어로 바꾸시오.

정보 사회의 진전에 따라 고도의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복지 사회가 실현될 것이고, 경직된 이데올로기와 서구 중심적인 세계관을 뛰어넘어 다양한 인류 문화가 공조하게 될 것이다. 정보 사회가 누구에게나 가능성이 열려 있고, 선택의 기회가 넓어 인간의 가치와 만족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 권위주의가 동반자적인 수평적 관계로 바뀔 것이라는 점에서도 고무적이고 많은 기대를 갖게 한다. 한마디로 정보 사회는 산업 사회의 여러 가지 그늘과 모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구성>

<예시 답안>

이전에는 잘 팔리는 제품이 ‘파레토 법칙’에 의해 독점적 지위를 누렸다면 정보화와 유통 및 운송업의 발달로 소외받던 제품군도 새롭게 주목을 받게 되었다.

#### 실전연습 2-4

‘핵심어’를 일반화, 추상화과정을 거쳐 자신만의 언어로 바꾸시오.

민속예술은 아래로부터 성장했다. 이는 고급문화의 도움 없이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 스스로 형성된 자발적인 민중의 표현이다. 대중문화는 위로부터 강요된 것이다. 이는 비즈니스맨에게 고용된 기술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관중은 수동적 소비자일 뿐 그들의 참여는 구매하느냐 마느냐의 선택에만 제한되어 있다. 통속적 작품의 제왕들은 간단히 말해 이윤을 더 내기 위해 자신의 계급적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대중의 문화적 욕구를 이용한다.

<재구성>

<예시 답안>

계급적 지배 논리에 의해 수동적으로 성장한 대중문화와 달리 민속 예술은 민중이 주체가 된 자율성의 표현이다.

#### 실전연습 2-5

‘핵심어’를 일반화, 추상화과정을 거쳐 자신만의 언어로 바꾸시오.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군주의 지배 아래 두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도 오로지 이 고통과 쾌락에 달려 있다. 우리는 고통과 쾌락에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공리성의 원리에 따라야 한다. 이것은 어떤 행위가 이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익이나 행복을 증대시키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의해 그 행위에 대해 가치 평가를 내리는 것이다.

<재구성>

<예시 답안>

인간은 자연적으로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려는 성향을 지니므로 이 성향의 외연을 확대하여 공리를 추구하여야 한다.

### 3. 중립적 표현

-> 논술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요약할 때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약은 제시문의 내용 중 핵심만을 간단히 정리해서 옮기는 작업이므로 요약할 때에는 ~에 의하면, ~하고 있다, ~것이다, ~의미이다, ~ 때문이다, ~수 있다, ~셈이다. 등의 중립적 표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① 다음 제시문을 중립적 표현을 사용하여 요약하라.

[제시문 A]	
한 개인이나 그 개인의 새로운 사상이 보편적이고 절대적으로 작용하면, 이는 그 영향을 받는 대중들이 그만큼 천편일률적이고 저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X	개인 혹은 그의 사상이 획일적으로 퍼진다면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수준이 저급하다.
O	<b>제시문 A에 의하면</b> 개인 혹은 그의 사상이 획일적으로 퍼진다면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수준이 저급하다고 볼 수 있다.

② 다음 제시문을 중립적 표현을 사용하여 요약하라.

[제시문 B]	
예술을 환상의 한 형태로 보는 견해가 있다. 환상은 현실적 소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생긴다. 인간 삶의 현실에는 완전한 만족이 있을 수 없다. 현실에서 해소되지 못한 소망이 환상으로 드러난다. 가령 이솝 우화 중에서 우유를 팔러 가는 여인이 그 우유를 팔아서 부유한 삶을 누리게 되리라는 환상에 빠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환상의 이러한 속성을 잘 보여준다.	
X	예술은 실현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므로, 환상의 한 형태이다.
O	예술은 실현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므로, 환상의 한 형태라고 보고 있다.

③ 다음 제시문을 중립적 표현을 사용하여 요약하라.

[제시문 C]	
구속이 없는 곳, 방종의 열광이 있는 곳에서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일은 없다. 법에 복종하지 않은 채 자유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유란 하프에 매인 줄과 같다. 하프가 아름다운 선율을 울릴 수 있는 것은 줄이 팽팽함을 유지할 때뿐이다. 적당하게 긴장되지 않은 하프 줄이란 그저 하나의 끈일 뿐이다. 인간이 젊어져야 할 책임의 최고 낮은 음과 최고 높은 음 사이의 줄들이 진리의 법칙을 좇아 잘 조율될 때에만 영혼은 자유를 누린다.	
X	자유는 방종과 다르게 진리를 따를 때만 의미가 있다.
O	제시문 C의 주장은 자유가 진리를 따를 때만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유는 방종과 다르게 구속과 적절한 긴장관계를 유지해야하기 때문이다.

## 실전연습 2-7

다음 제시문을 중립적 표현을 사용하여 요약하라.

(~에 의하면, ~하고 있다, ~것이다, ~의미이다, ~ 때문이다, ~수 있다, ~셈이다.)

[제시문 A]

사람들은 가상공간에서만 존재하는 가상현실과 실제 현실을 혼동하여 부적응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그 결과, 서로 다른 질서가 작동 중인 두 공간 사이를 넘나들면서 개인적으로 자아의 혼돈과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 혼란으로까지 발전하여 매우 심각한 양상을 띠 수도 있다.

<중립적 표현>

<예시 답안>

제시문 A는 가상현실 때문에 사회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현실의 자아와 가상의 자아가 서로에게 혼란을 주기 때문이다.

## 실전연습 2-8

다음 제시문을 중립적 표현을 사용하여 요약하라.

(~에 의하면, ~하고 있다, ~것이다, ~의미이다, ~ 때문이다, ~수 있다, ~셈이다.)

[제시문 B]

시장이 항상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독과점의 횡포, 환경오염의 피해, 공공재의 생산 부족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의 경제 활동에 개입해 왔다. 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 공기업을 통한 독점 사업의 운영,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

<중립적 표현>

<예시 답안>

제시문 B는 정부의 시장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독과점,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 혼자서 해결하기

제시문 (가), (나), (다), (라)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통 주제를 도출하고, 각 제시문에 나타난 논지의 차이를 논술하시오. [500~550자] (2010 중앙대 수시)

(가)

문노니, 그대는 왜 푸른 산에 사는가.  
웃을 뿐, 답은 않고 마음이 한가롭네.  
복사꽃 띄워 물은 아득히 흘러가나니,  
별천지 따로 있어 인간 세상 아니네.

(나)

이 섬에는 54개의 훌륭한 도시가 있고 모두 같은 언어, 법률, 관습,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시들은 전부 동일한 설계에 기초하여 건설되었고 지형이 허락하는 한 비슷하게 보일 수 있도록 건설되었습니다. 각 도시는 연로하고 경험이 아주 많은 시민 중에서 세 사람을 뽑아 아마우로툼의 연례 회의에 파견해서 섬 전체에 대한 공동의 관심사를 토의하게 합니다. 시민들은 낮과 밤을 24시간으로 나누어 그 중 여섯 시간만 노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오가 되면 점심을 먹고, 점심 후에 두 시간 쉬고 나서, 오후에 세 시간 일합니다. 저녁을 먹고, 8시에 잠자리에 들어 여덟 시간 잠을 잡니다. 그들이 하루에 여섯 시간만 일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생활필수품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그들의 작업 시간은 생활에 필요하거나 편리한 물품을 실컷 쓰기도 남을 정도로 공급하는 데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자들을 모두 헤아려 보면 인간에게 필요한 물건들이 당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수의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유익한 일자리에 배치하고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들에게 생산적인 일을 맡긴다면 인간에게 필요하고 유용하고 즐거운 물건을 만들어 내는 데 짧은 시간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 국가 체제를 구성한 주요 목적은, 모든 시민들이 나라에서 꼭 필요로 하는 일 맡고는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육체노동에서 벗어나 마음의 개발에 전념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거기에 삶의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한편, 그들이 사는 도시는 동일한 규모의 네 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각 구역의 한복판에 시장이 있습니다. 각 가구에서 만들어 내는 물품들이 이곳으로 운반되어 창고에 보관되는데, 각 물품은 각기 정해진 장소에 놓여 있습니다. 각 가구의 가장은 여기에서 자신과 자기 가족에게 필요한 물품을 찾아서, 값을 치르거나 어떤 보상을 하지 않고 그냥 가져갑니다. 그가 . 아무 것이나 가져오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모든 물품이 풍족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청구해서 가져갈 위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물건이든 언제나 풍족하게 공급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물품을 저장해 둘 필요가 없습니다. 결핍의 공포가 없는 한 짐승조차도 천성적으로 탐욕을 부리지 않는 법입니다.

(다)

21세기 전반부에 우리는 세 개의 혁명이 꼬리를 물고 중첩되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유전학의 혁명, 나노기술의 혁명, 로봇공학의 혁명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내가

5기라 칭한 시대, 즉 특이점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현재 우리가 처한 지점은 ‘G(Genetics, 유전학)’ 혁명의 초기 단계이다. 우리는 생명이 간직한 정보처리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인체의 생물학을 재편하는 법을 익히고 있다. 질병을 근절하고, 인간의 잠재력을 극적으로 넓히고, 수명을 놀랍도록 연장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그러나 한스 모라 백의 지적에 따르면 우리가 아무리 DNA에 기반을 둔 생물학을 자유자재로 활용하게 된다 해도 인간은 ‘2류 로봇’으로 남을 것이다. 일단 생물학의 작동원리를 완벽히 이해한 뒤 손질을 가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더 이상 생물학의 도구만으로는 부족하리라는 뜻이다. 생물학의 한계를 넘게 해 줄 것은 ‘N(Nanotechnology, 나노기술)’ 혁명이다. 나노기술은 우리 몸과 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분자 수준으로 정교하게 재설계하고 재조립하게 해 줄 것이다. 나노기술을 자유자재로 다루게 되면 우리는 세포핵 속의 생물학적 유전정보 보관소를 나노기술로 만든 물질과 바꿔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유전암호를 지닌 동시에 RNA, 리보솜, 기타 생물학적 조립에 필요한 컴퓨터 요소들의 활동을 모방하는 기계를 집어넣는 것이다. 유전암호를 저장하고 유전자 발현 알고리즘을 간직한 나노컴퓨터, 발현된 유전자에 대해 아미노산 조립을 수행하는 나노봇이 있으면 된다. 이렇게 세포핵을 나노기계로 대체하게 되면 DNA의 전사 오류가 누적되는 것을 막아 노화를 방지할 수 있고, 나노기계에 명령어 전파 구조를 탑재하면 언제라도 원치 않는 복제 활동을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암, 자가 면역 반응, 기타 질병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특이점을 뒷받침할 세 가지 주된 혁명들(GNR) 중에서도 ‘R(Robotics, 로봇공학)’혁명은 가장 심원한 혁명이다. 인간의 지능을 본받았지만 그보다 한층 강력하게 재설계될 인간 수준의 로봇들이 등장할 것이다. 이것은 평범한 인간을 뛰어넘는 비생물학적 지능, 다시 말해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의 탄생을 뜻한다. 일단 세상에 등장한 강력한 AI는 죽죽 나아가며 힘을 늘릴 것이다. 하나의 강력한 AI는 곧 수많은 강력한 AI들을 낳을 것이고 그들은 스스로의 설계를 터득하고 개량함으로써 자신보다 뛰어나고 지능적인 AI로 빠르게 진화할 것이다. 이러한 AI 시스템은 그저 사전에 입력된 규칙들을 따르기보다 새로운 상황에 맞는 해법을 스스로 추론하여 알아내기 때문에 무인 우주선을 통제하는 소프트웨어나 난치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을 찾아내기 위한 자동 발견 기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는 세상이 올 것이다. 결과적으로 특이점을 통해 우리는 생물학적 몸과 뇌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의 미래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라)

최소국가론은 대부분의 자유주의자들이 이상으로 여겼던 다원주의의 이념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사실상 거부해온 유토피아적 비전을 자유주의 전통을 위해서 다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이 정치철학은 개인들이 동맹을 맺어 자신들의 다양한 이상적 비전들을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 질서의 틀로서 최소국가를 제시하였다. 모든 개인과 집단의 행복과 선을 실현할 수 있는 질서의 틀로 생각한 최소국가의 논리적 발전 단계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1단계: 권리를 가진 개인들이 자연 상태에 살고 있다.

2단계: 1단계에 있는 개인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발적 협회를 형성한다.

3단계: 2단계의 협회들은 각 지역에서 지배적인 형태로 발전되어 극소국가를 형성하게 된다. 이 극소국가에서는 이에 참여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자만이 보호를 받게 되며, 그

령지 않은 자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  
 4단계: 3단계의 극소국가는 각자의 독립적 영역에 남아 있는 개인들에게 보상함으로써 이들을 흡수하여 최소국가를 형성한다.  
 이와 같은 최소국가의 발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을 권리를 가진 존재로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최소국가는 의도적인 사회계약의 결과로 성립되었다기보다는 단계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을 누구의 자기소유권도 침해하지 않으면서 해결하려는 노력 속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한다. 여기서 자연 상태의 개인들은 원래 국가를 창출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개인들은 계약 이전에 존재하는 개인의 절대적인 자기소유권을 효율적으로 지키기 위해 개인 차원의 선택에 충실했을 뿐이다. 한편, 국가의 필요성 여부는 이 정치철학의 근본 문제가 된다. 아나키즘의 논리에 따르면, 개인이 자신에 대한 권리를 갖는 한, 모든 형태의 국가는 억압의 기제일 뿐이다. 최소국가론에서도 개인들은 욕망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어떤 사람이나 집단도 이 개인들에게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는 명제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최소국가론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강압, 절도, 사기로부터의 보호, 계약의 집행 등의 협소한 기능들에 국한된 최소국가는 정당하며, 그 이상으로 기능이 확대된 국가는 특정한 것을 하도록 강요당하지 않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 1. 선택 및 삭제

(가)	
(나)	
(다)	
(라)	

## 2. 재구성

(가)	
(나)	
(다)	
(라)	

## 3. 중립적 표현

(가)	
(나)	
(다)	
(라)	

#### 4. 답안 작성하기

혼자서 해결하기 - 예시 답안

1. 선택 및 삭제

(가)	<p><del>물노니, 크대는 왜 푸른 산에 사는가.</del>  <del>웃을 뻔, 답은 않고</del> 마음이 한가롭네.  <del>복사꽃 띄워 물은 아득히 흘러가더니,</del>  <del>별천지 따로 있어</del> 인간 세상 아니네.</p>
(나)	<p>시민들은 여섯 시간만 노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유익한 일자리에 배치하고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들에게 생산적인 일을 맡긴다면 인간에게 필요하고 유용하고 즐거운 물건을 만들어 내는 데 짧은 시간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 국가 체제를 구성한 주요 목적은 마음의 개발에 전념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p>
(다)	<p>우리가 아무리 DNA에 기반을 둔 생물학을 자유자재로 활용하게 된다 해도 인간은 '2류 로봇'으로 남을 것이다. 생물학의 한계를 넘게 해 줄 것은 'N(Nanotechnology, 나노기술)' 혁명이다. 나노기술은 우리 몸과 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분자 수준으로 정교하게 재설계하고 재조립하게 해 줄 것이다. 특이점을 뒷받침할 세 가지 주된 혁명들(GNR) 중에서도 'R(Robotics, 로봇공학)'혁명은 가장 심원한 혁명이다. 이것은 평범한 인간을 뛰어넘는 비생물학적 지능, 다시 말해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의 탄생을 뜻한다. 하나의 강력한 AI는 곧 수많은 강력한 AI들을 낳을 것이고 그들은 스스로의 설계를 터득하고 개량함으로써 자신보다 뛰어나고 지능적인 AI로 빠르게 진화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특이점을 통해 우리는 생물학적 몸과 뇌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의 미래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p>
(라)	<p>최소국가는 의도적인 사회계약의 결과로 성립되었다기보다는 단계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을 누구의 자기소유권도 침해하지 않으면서 해결하려는 노력 속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한다. 여기서 자연 상태의 개인들은 원래 국가를 창출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개인들은 계약 이전에 존재하는 개인의 절대적인 자기소유권을 효율적으로 지키기 위해 개인 차원의 선택에 충실했을 뿐이다. 최소국가론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강압, 절도, 사기로부터의 보호, 계약의 집행 등의 협소한 기능들에 국한된 최소국가는 정당하며, 그 이상으로 기능이 확대된 국가는 특정한 것을 하도록 강요당하지 않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p>

2. 재구성

(가)	<p>자연에 몸을 의지하여 세속에 대한 욕심 없이 유유자적하는 삶은 근심이 없어 선의 삶과도 같다.</p>
-----	---

(나)	사회의 구성원들이 꼭 필요한 일에만 노동력을 사용하고, 나머지 시간은 심리적 행복을 추구하는데 사용한다면 진정으로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다)	나노기술의 발달은 세계를 정교하게 분자단위로 재구성하게 해줄 것이며, 로봇 기술의 발달은 로봇으로 하여금 스스로 판단을 가능하게 하여 인간의 생물학적인 한계를 극복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 두 가지 혁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	국가는 자연 상태의 개인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여 개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감을 느끼며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개입을 하면 충분하고 그 이상의 개입은 불필요하다.

### 3. 중립적 표현

(가)	제시문 (가)는 자연에 몸을 의지하여 세속에 대한 욕심 없이 유유자적하는 삶은 근심이 없어 신선의 삶과도 같다고 보고 있다.
(나)	제시문 (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꼭 필요한 일에만 노동력을 사용하고, 나머지 시간은 심리적 행복을 추구하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제시문 (다)에 의하면 나노기술의 발달은 세계를 정교하게 분자단위로 재구성하게 해줄 것이며, 로봇 기술의 발달은 로봇으로 하여금 스스로 판단을 가능하게 하여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를 극복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 두 가지 혁명이 이뤄진 세계를 이상적이라 여길 것이다.
(라)	제시문 (라)는 국가의 역할에 대해 논하고 있다. 국가는 자연 상태의 개인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여 개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감을 느끼며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개입을 하면 충분하다고 보며 그 이상의 개입은 불필요하다고 본다.

### 4. 답안 작성하기

제시문 (가), (나), (다), (라)의 공통 주제는 ‘바람직한 삶의 형태’이다. 먼저, 제시문 (가)는 자연에 몸을 의지하여 세속에 대한 욕심 없이 유유자적하는 삶은 근심이 없어 신선의 삶과도 같다고 보고 있다. 제시문 (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꼭 필요한 일에만 노동력을 사용하고, 나머지 시간은 심리적 행복을 추구하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다)에 의하면 나노기술의 발달은 세계를 정교하게
--

분자단위로 재구성하게 해줄 것이며, 로봇 기술의 발달은 로봇으로 하여금 스스로 판단을 가능하게 하여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를 극복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 두 가지 혁명이 이뤄진 세계를 이상적이라 여길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시문 (라)는 국가의 역할에 대해 논하고 있다. 국가는 자연 상태의 개인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여 개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감을 느끼며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개입을 하면 충분하다고 보며 그 이상의 개입은 불필요하다고 본다.